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 한-중앙아시아

K SILK ROAD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 서문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의 외교 비전을 구현해 왔습니다.

강대국들 간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식량·에너지 안보 위기를 가중시키면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큰 대한민국의 외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민첩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보편가치를 표방하는 나라들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국제 규범에 입각한 자유무역과 평화 질서를 구축하고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개발, 기후변화,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에 비례해 국제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경제와 안보의 위험 부담이 커진다는 인식하에, 글로벌 복합 위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의 위기 대응 역량을 지원하는 노력을 배가해 왔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발돋움한 우리의 발전 경험을 널리 공유하고, 국제사회에서 격상된 대한민국의 위상과 책임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품격 있는 외교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한국의 첫 독자 지역외교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이를 동남아시아 지역에 특화해 구체화 한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기획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중앙아시아를 특정한 한국의 첫 포괄적 외교전략으로서, 우리나라 외교 네트워크의 외연을 확장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고대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로서 교역과 왕래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이제 풍부한 부존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요충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랜 교류의 역사, 언어와 문화의 유사성에 기반한 중앙아시아와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고자 합니다.

동행, 융합, 창조의 세 가지 협력원칙을 토대로 한국의 첨단기술과 혁신역량,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발전 잠재력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이 더욱 큰 기회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보다 큰 성장과 번영을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2024년 6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 Contents

## I

<b>추진 배경</b>	<b>07</b>
--------------	-----------

## II

<b>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b>	<b>11</b>
-----------------------	-----------

## III

<b>협력의 비전과 원칙</b>	<b>19</b>
-------------------	-----------

1. 협력의 비전 :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2. 협력 원칙 : ① 동행 ② 융합 ③ 창조

## IV

### 중점 과제와 추진 체계

25

1. R(Resources)

전략적 에너지·자원 파트너십

2. O(ODA)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협력

3. A(Accompany)

오랜 유대에 기반한 동반자 협력

4. D(Drive)

정부, 기업, 국민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 V

### 결론

39





I

# 추진 배경



# I 추진 배경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한 이래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전방위 외교를 전개해 왔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NATO 회원국들과 가치 외교 파트너십을 강화하였고, 같은 해 대한민국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하였다.

2023년에는 제1차 한-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였고, 사우디·UAE·카타르 등과 對중동 외교를 강화하면서 외교의 외연을 태도국과 중동으로 확대하였다. 올해에는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외교를 강화하는 등 지난 2년여 동안 전 세계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인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한층 더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키 나가기 위한 방안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모색해 왔다.

대한민국은 1992년 수교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지난 30여 년 동안 활발한 정상급 교류를 실시하는 가운데 에너지, 건설, 교역, 투자 등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도 심화해 왔다. 2022년 수교 30주년 계기 개최된 제15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향후 30년의 파트너십에 대한 의지도 확고히 하였다.

최근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위기,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지정학적, 지경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 중국,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과 인접해 있고, 석유, 천연가스, 희귀광물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경제적 가치는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30여 년의 한-중앙아시아 협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질서 변화에 부합하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K SILK ROAD Initiative)」을 수립하였다.

대한민국은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해 향후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나아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외교적 외연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완성하게 될 것이다.





II

# 중양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 II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 1.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 지역으로 부상

과거 고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의 중심지로서 광활한 지역(5개국 합쳐서 한반도의 18배, 약 400만km<sup>2</sup>)에 걸쳐있는 중앙아시아는 1991년 옛 소련 연방이 해체된 후 독립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복합위기가 대두되면서 지리적 요충지라는 이점과 풍부한 천연자원을 겸비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점증함에 따라, 주요국들은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미국, EU, 독일은 2022년 이후 C5(중앙아시아 5개국)+1(역외국가) 형태의 정상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고, 마찬가지로 그간 이 지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온 러시아와 중국도 같은 시기에 중앙아시아와 최초의 정상회의를 가지는 등 주요국들의 중앙아시아 외교는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이다.

한편, 최근 다국적 기업들도 생산 기지를 중앙아시아로 이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가입하여 현재 6천여 개 이상의 품목을 무관세로 EU에 수출하고 있어 다국적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이자 잠재적인 물류거점으로 각광 받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발맞추어 주요국들과의 정상회의 개최에 적극 호응하는 등 외교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그간 중앙아시아 내 갈등의 원인이었던 국경 분쟁을 종식하고, 수자원 공동 관리에 주력하는 등 역내 정치, 경제협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아시아의 대내외 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중앙아시아는 국제 사회의 많은 주목을 받으며 주요국들의 '전략적 협력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 2. 풍부한 부존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

중앙아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이 지역의 부존자원과 성장 잠재력에 기인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가스와 같은 전통적인 화석에너지를 다량 보유하고 있고, 수력,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자원 부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을 보유한 가스 부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석유와 가스 외에도 금, 몰리브덴,

## II.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텅스텐 등 다수의 희귀금속을 보유하고 있으며,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고지대를 기반으로 한 풍부한 수력자원이 강점이다.

특히, 중앙아시아는 2차전지에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비롯하여 신성장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어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풍부한 부존자원 덕분에 국가 발전을 위한 재원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이점도 있다.

나아가 중앙아시아 5개국의 총인구 8천여만 명 중 14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30%에 달하고, 30세 이하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인구 구조의 특성은 중앙아시아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여준다. 중앙아시아는 이러한 강점들을 바탕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평균 5%의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간 교역액은 2023년 기준 약 83억불로, 우리의 높은 기술력과 중앙아시아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양측이 더욱 큰 협력의 시너지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 중앙아시아 5개국 인구 및 0-14세 비율

(출처 : World Bank)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b>인구</b> (천명, '22)	19,621	6,974	9,952	6,430	35,648
<b>0-14세 비율</b> (%, '22)*	29.7	34.4	36.3	31.1	30.2

\* 한국과 일본은 11.6%, 미국은 18%

### 중앙아시아 5개국 경제성장률

(출처 : World Bank)

	'14	'15	'16	'17	'18	'19	'20	'21	'22
카자흐스탄	4.2	1.2	1.1	4.1	4.1	4.5	-2.5	4.3	3.2
키르기스스탄	4.0	3.9	4.3	4.7	3.8	4.6	-7.1	5.5	6.3
타지키스탄	6.7	6.0	6.9	7.1	7.6	7.4	4.4	9.4	8.0
투르크메니스탄	10.3	6.5	6.2	6.5	6.2	6.3	-3.4	4.5	1.7
우즈베키스탄	6.9	7.2	5.9	4.4	5.9	6.0	2.0	7.4	5.7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강력한 개혁 의지를 갖고 있다.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이 각각 1998년, 2015년에 WTO에 가입한 데 이어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WTO 가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WTO 가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자원과 인구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중앙아시아에 대한 투자와 교역이 보다 활성화되고, 중앙아시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3. 미래 연대를 위한 우리와의 공통분모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지리적인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의 역사를 함께 해왔다.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있는 아프로시아넨 벽화에는 고대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사신 그림이 남아있는데,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 II.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

실크로드를 통해 1,400여 년 이상 교류해왔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한,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범(凡)알타이어 족에 속한다. 어른을 공경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적 전통도 우리와 닮아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내 32만 명의 고려인 동포는 우리와 중앙아시아를 이어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옛 소련연방 시절인 1937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고려인들의 후손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18만 명, 카자흐스탄에 12만 명, 키르기스스탄에 2만 명, 그리고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각각 650명 가량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 성실함을 바탕으로 현지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운데,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전파하면서 한-중앙아시아 관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 사이의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 유대는 양측이 미래를 함께 열어가갈 수 있는 공고한 기반이 될 것이다.







# III

## 협력의 비전과 원칙

- 
1. 협력의 비전 :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2. 협력 원칙 : ① 동행 ② 융합 ③ 창조

# III 협력의 비전과 원칙

## 1. 협력의 비전 : 자유, 평화, 번영의 한국과 중앙아시아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 다양한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맥락 하에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자 중앙아시아에 대한 포괄적 외교 전략이다.

우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지켜온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와 함께 자유로운 국제사회를 지향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규칙 기반 질서를 촉진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우리는 국제연합의 평화 추구 원칙을 재확인하며, 국제법과 국제규범이 준수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촉진함으로써 역내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와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 양측의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 의제의 연결성과 상호 보완성을 제고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기후변화, 공급망 위기, 디지털 격차 등 글로벌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한국과 중앙아시아와의 활발한 문화 교류를 통해 문화적 융성을 이룩해 나갈 것이다.



## 2. 협력 원칙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동행, 융합, 창조의 3대 협력 원칙에 기반한다.



### III. 협력의 비전과 원칙

#### I 동행

첫째, 대한민국은 과거 30여 년에 걸쳐 다져온 중아시아와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미래로 함께 나아가고자 한다. 자원과 기술의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면서 산업과 에너지 분야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쌍방향 인적·문화적 교류도 더욱 활성화하면서 유대감을 더욱 심화시켜 나아가고자 한다.

#### I 융합

둘째, 대한민국은 중아시아와 서로의 역량과 강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함께 창출해 나아가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첨단과학기술과 디지털 역량, 중아시아의 풍부한 자원과 지정학적 이점을 결합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나갈 것이다.

#### I 창조

셋째, 우리의 혁신 역량과 중아시아의 발전 잠재력을 연계하여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조해 나아가고자 한다. 과거에 실크로드가 동서양 간 문명과 문물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풍부한 인류의 유산을 창조하는데 기여했듯이, 「한-중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해 창의와 혁신의 유라시아 협력 모델을 가꾸어 나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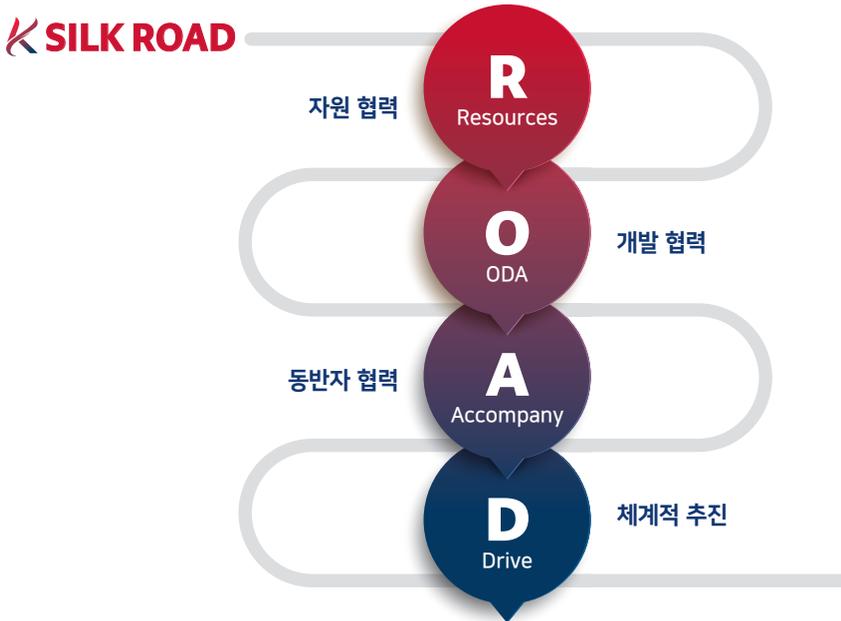
# IV

## 중점 과제와 추진 체계

1. R(Resources)  
전략적 에너지·자원 파트너십
2. O(ODA)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협력
3. A(Accompany)  
오랜 유대에 기반한 동반자 협력
4. D(Drive)  
정부, 기업, 국민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 IV 중점 과제와 추진 체계

대한민국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해 자원협력(Resources), 개발협력(ODA), 동반자협력(Accompany)을 중점 추진하며, 정부, 기업, 국민들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추진체계(Drive)를 통해 위의 세 가지 협력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



## 1. R(Resources) - 전략적 에너지·자원 파트너십

K SILK ROAD의 ‘자원협력(Resources)’은 대한민국이 그간 중앙아시아와 맺어온 에너지·자원 파트너십을 전략적 차원으로 한층 더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에너지 자원 협력의 키워드



에너지·자원 개발, 가공, 활용 및 인프라 건설 수주 확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원전,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등 기후 위기 대응 공조

중앙아시아는 1990년대 중반 카스피해 연안의 풍부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널리 알려지면서 세계 우수 기업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우리 기업들도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여 그간 수르길, 키안리 가스화학 플랜트 등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석유와 가스의 개발, 가공, 활용을 위한 인프라 건설 사업과 석유화학 관련 사업에 계속 활발히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노후 발전소 수명연장, 전력 효율 개선, 지역난방 현대화 등 스마트 에너지 분야로도 민간 협력을 다변화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IV. 중점 과제와 추진 체계

##### 중앙아시아 각국의 원유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2020년 및 2022년 기준)

국가	원유 매장		원유 생산			
	매장량 (억 배럴)	전 세계 비중 (%)	생산량(백만톤)		전 세계 비중(%)	
			2020년	2022년	2020년	2022년
카자흐스탄	300	1.7	86.1	84.1	2.1	1.9
우즈베키스탄	6	-	2.1	2.8	0.1	0.1
투르크메니스탄	6	-	10.3	11.6	0.2	0.3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Energy institute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3.

##### 중앙아시아 각국의 천연가스 매장량 및 생산량 현황

(2020년 및 2022년 기준)

국가	천연가스 매장		천연가스 생산			
	매장량 (조 m)	전 세계 비중 (%)	생산량(억 m)		전 세계 비중(%)	
			2020년	2022년	2020년	2022년
카자흐스탄	2.3	1.2	317	260	0.8	0.6
우즈베키스탄	0.8	0.4	471	489	1.2	1.2
투르크메니스탄	13.6	7.2	590	783	1.5	1.9

자료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Energy institute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3.

또한, 정부는 우라늄, 리튬, 구리, 폴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핵심광물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와 공급망 협력을 호혜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우즈베키스탄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 카자흐스탄 리튬 광구 사업을 통해 자원 개발과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한-중앙아시아 공급망 대화」 창설 등 핵심 광물 관련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 33종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b>33종 핵심광물</b>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니오븀, 구리, 알루미늄, 규소, 마그네슘, 몰리브덴, 바나듐, 백금족(2종)**, 주석, 타이타늄, 텅스텐, 안티모니, 비스무트, 크롬, 연, 아연, 갈륨, 인듐, 탄탈륨, 지르코늄, 스트론튬, 셀레늄 *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세륨, 란타) ** 백금족(백금, 팔라듐)
<b>10대 전략 핵심광물</b>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5종)* * 영구자석 소재 :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 반도체 연마제 : 세륨, 란타

한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그간 석유와 천연가스 등 전통 에너지 자원에 크게 의존해 왔으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도입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아울러, 내륙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수자원 개발과 관리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다. 정부는 중앙아시아와 원전, 태양광, 수력발전, 폐기물 처리, 스마트물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감으로써, 중앙아시아의 에너지원 다각화와 효율화에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한-우즈베키스탄 기후변화 협력 협정」과 같은 양자 기후 협력 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중앙아시아와의 기후변화 협력 파트너십도 강화해나가고자 한다.

## 2. O(ODA) -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개발협력

‘개발협력(ODA)’ 파트너십은 대한민국이 중앙아시아와 함께 동반성장을 가속화하면서 기후위기, 식량위기, 보건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에 대처하는 역량을 함께 증진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개발협력 키워드



공공행정 기술협력 및 디지털화 지원

공무원 교육 및 인사행정 경험 전수

기술 주도 산업화 전환 촉진

식량안보 및 친환경 자원 순환 경제 지원

물류,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 인프라 개선

이러한 개발협력 파트너십은 중앙아시아가 디지털 전환, 산업화 전환, 친환경 전환을 망라한 대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중앙아시아 공공행정 분야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지원해 나갈 것이다. 행정 정보, 관세 행정,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무상 지원을 통해 중앙아시아 공공행정 서비스의 혁신에 기여하고, 농축산물 검역행정, 의회 행정 분야의

디지털화를 지원하여 중앙아시아 공공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공무원 교육과 인사행정제도 발전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초청 연수, 정책자문 사업들을 실시하고,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희망하는 AI 등 첨단기술 분야 교육도 추진한다. 이로써, 중앙아시아 공공행정 혁신과 발전의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디지털 기반 일자리와 창업 생태계를 촉진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 산업 기술자들이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전문성을 연마할 수 있도록 인력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청년 창업자들이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중앙아시아 취업·창업 생태계를 연결해 나가하고자 한다. 또한 기술 자격검증제도를 발전시킨 우리의 성공사례를 중앙아시아에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제공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와 농업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선진 농업기술을 전수하여 농업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등 농림·축산 분야에서 포괄적 지원과 협력을 모색할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농림·축산 분야에서 생산력과 위기 대응 복원력을 강화함으로써 식량안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는 양자 간 기후협력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개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업 기후

#### IV. 중점 과제와 추진 체계

적응력 강화 ▲농업용수 등 물관리 체계 개선 ▲친환경 교통(그린 모빌리티) 실현 ▲대기질 개선 ▲폐기물의 친환경 분리 처리와 재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중앙아시아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기후 대응 관련 기술협력은 중앙아시아의 친환경·저탄소 인프라 및 인적 역량을 강화하고 친환경 자원순환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유관 분야의 민관 협력을 다변화하고 촉진할 수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물류, 보건·의료, 교육 등 사회·경제 인프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내 교통·물류 연계사업에 참여하여 중앙아시아의 물류 이동과 경제교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고, 이는 향후 한국 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의 보건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병원 등 보건 의료 체계를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해 나가고자 한다. 아동 대상 기초교육뿐 아니라 과학기술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중앙아시아의 교육 접근성이 제고되면 산업화 전환을 위한 인적 자원 개발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포괄적인 분야에서 유·무상 개발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중앙아시아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촉진함과 동시에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심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 3. A(Accompany) - 오랜 유대에 기반한 동반자협력

‘동반자협력(Accompany)’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가 맺어온 특별한 유대를 바탕으로 인적, 문화적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동반자 협력의 키워드



청년 교류 증진

쌍방향 인적, 문화 교류 활성화

고려인 동포와의 네트워크 확대

옛 소련연방 시절 극동지역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1937년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이후, 현재 약 32만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들이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한-중앙아시아 교류협력의 능동적인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 내 고려인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앙아시아 동포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상호 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활성화」 ▲고려인 동포를 모국에 초청하는 「차세대 고려인 동포 직업연수 프로그램」과 같은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보다 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하여 중앙아시아 주류 지도층에 진입하여, 한-중앙아시아의 공동번영과 발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 IV. 중점 과제와 추진 체계

또한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 청년들이 활발히 교류하면서 신뢰와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이들이 향후 건강하고 성숙한 한-중앙아시아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프로그램」 확대 ▲세종학당과 한국어 채택 현지 교육기관 지원 강화 ▲정부초청장학사업(GKS), 청년 예술인력 장학지원(AMA+) 사업 확대 ▲산학 협력 증진을 위한 한-중앙아시아 대학간 교류 활성화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와 인적 왕래와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다. 직항 항공편 증대를 통해 인적 교류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관광박람회 상호 참가 ▲의료관광, 교육 여행 등으로 교류의 다변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이렇듯,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와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가 강점을 지닌 디지털 역량을 활용하여 중앙아시아의 문화재 디지털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중앙아시아에 대한 디지털 공공외교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는 한 목소리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다.

## 4. D(Drive) - 정부, 기업, 국민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

‘드라이브(Drive)’는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정부, 기업, 국민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자원협력(Resources), 개발협력(ODA), 동반자협력(Accompany)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미이다.

### 추진체계 키워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창설 및 정부 간 고위급 협의 체계화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포럼」으로 기업 간 네트워크 지원

민간 및 지자체 차원의 협력체 지원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사무국> 역할 확대

정부는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정부 간 고위급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관련,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그 첫 회의를 2025년 국내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관계를 중앙아시아 對 한국의 관계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또한, 그간 미국, EU, 일본 등과 함께 참여해온 중앙아시아 관련 유사입장국 협의 등을 바탕으로 이들과 중앙아시아 외교를 공조해 나가고자 한다.

#### IV. 중점 과제와 추진 체계

아울러 「한-중앙아시아 고위급 경제회의」를 신설하여 교역, 투자, 공급망 등 세부 경제 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며, 「한-중앙아시아 국가별 개발협력 정책 협의회」를 가동하여 개발협력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중앙아시아 기업들 간에도 보다 체계적인 협력 체계가 갖춰지도록 「한-중앙아시아 비즈니스 포럼」 개최를 지원하고자 한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투자촉진 프레임워크(TIPF)와 투자보장협정을 적극 체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역내 활동을 지원하고 한-중앙아시아 교역과 투자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민간 차원의 교류협력도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 예술 기관, 대학, 학술 단체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한-중앙아시아 지자체간 협력체가 가동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한편 2017년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사무국>은 매년 개최되고 있는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의 주요 사업들을 이행해 왔으며, 향후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정부, 기업, 국민 간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한-중앙아시아 재단> 또는 관련 국제기구의 설립을 검토함으로써 중앙아시아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V

결론



## V 결론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는 과거에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이자 교역과 왕래의 통로였으며, 지금은 풍부한 부존자원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감염병 확산 이후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및 업그레이드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원자력을 포함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선도국이자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AI, 빅데이터, 반도체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만큼, 중앙아시아의 기후 대응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 우리의 역량이 핵심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중앙아시아와의 오랜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난 30여 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와 함께 자유, 평화, 번영의 미래를 그려나가기 위해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수립하였다. 본 구상은 대한민국과 중앙아시아의 파트너십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이 에너지·자원(R), 개발협력(O), 동반자 협력(A)이라는 중점과제에 잘 스며들도록 하고, 이들 과제가 정부·기업·국민 간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추진(D)되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기반한 세부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 동북·중앙아시아국 중앙아시아과와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면서 관련 부처들과 공조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중앙아시아 외교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중앙아시아와의 소통과 교류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앙아시아

K SILK ROAD

미래로 함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 K 실�크로드 협력 구상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처 대한민국정부